

“태권도로 하나되는 무대 만드는데 큰 자부심 느껴”

웰빙태권체조·시범페스티벌 성료

제14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이 지난 3일과 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일보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함께 하는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은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 가치를 올바르게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4년 무주에서 처음 개최되기 시작해 올해로 14회 째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과 무주군,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윤여일 무주군 부군수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여일 부군수는 “많은 태권도 대회들이 있지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 만큼 돋보이는 행사는 드물다”라며 “태권도를 생활 속의 스포츠로 인식시키고 동호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성지가 되고 태권도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에서는 웰빙태권체조 부문에 중·고등·일반부 학생들이 참가해 자유구성종합 경연을 치렀으며 시범팀 경연 부문에서는 유·청소년부와 성인부 선수들이 태권도 기본동작과 창작품새, 격파, 호신술 등 다양한 경기 모습을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제14회 웰빙태권체조 및 시범페스티벌이 지난 3일과 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관객들은 “태권도는 겨루기만 생각하다가 올해 처음 와서 봤는데 몸이 들쭉들쭉하니 신나고 재밌더라”며 “특히 시범 경연은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듯 감명 깊었다”라고 전했다.

한 선수는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배우고 느끼는 게 정말 많다”라며 “이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매력을 찾아 전하고 태권도로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어 간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2018년 신지식농업인 정읍수박연구회 이석변 회장 선정

수박명인으로 잘 알려진 정읍수박연구회 이석변 회장은 지난 2일,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신지식농업인상 시상식에서 과채류부분(수박)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이 회장은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1 대한민국 농업기술명인' 중 채소작물분야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읍을 대표하는 농업인이다. 이 회장은 수박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재배작형을 애호박, 수박, 무, 배추, 쪽파 순으로 돌려짓기 하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화학비료 대신 엔자임, 쌀겨, 흑설탕을 혼합해 만든 균강을 시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인근 농가에 보급하고, 균강과 수단그라스를 활용한 바이러스 없는 수박재배농법 보급에 힘쓰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농업인의 출현에 뿌듯하다”며 “이석변회장의 수상이 정읍 농업인들에게 기본 좋은 자극이 되어 살 맛 나고, 스마트한 농생명도시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2일과 3일 경남 통영시에서 여성단체회원 및 지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창의적 사고 능력 배양과 환경변화의 인식 ▲조직을 둘러싼 리더십 체험 ▲자기계발을 통한 여성 리더의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특강과 지역문화를 탐방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김태욱 강사가 “앞서가는 여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먼파워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이끌 여성리더의 4대 핵심역량, 성공적인 리더십의 가치 변화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한국커리어코칭센터 주영영 대표는 “여성!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나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소통과 자기계발로 여성 리더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고을시장과 함께하는 美食투어, 웰빙푸드&아트 페스티벌 성료

정읍시 생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정현우, 이하 사업단)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생고을시장 앞 정읍천 일대에서 '제1회 정읍 생고을 웰빙푸드 &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생고을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강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사용한 웰빙푸드와 정읍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유명 막걸리를 준비해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연출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생고을시장 상인기획단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먹거리들이 판매됐으며, 행사 내내 걸그룹 베리굿과 서주경이 출연한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라이브 콘서트, 생고를 도전전곡 노래방, 생고를 히든콘서트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흥을 돋우었다. 또한 불꽃놀이, 생고를 푸드 이벤트, 생고를 청춘만마당 등의 부대행사가 치러져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상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경연대회 우수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주관한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주최로 열린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도내 대학 및 마이스터고 8개 팀이 참가했으며, 현장에서 제한시간 30분 안에 조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3가지 이상을 사용해 맛과 영양이 있는 음식을 만드는 미션이 주어진 가운데 식품영양학과 김누리, 박찬미, 전상규 학생이 팀을 이룬 원광대는 출품작 '알뜰살뜰'으로 독창성과 상품성을 내세워 우수상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알뜰살뜰'은 생닭(히립), 간 메추리알(청하), 쌀과자(깊은숙행복한식품), 간 마늘(성진푸드)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제품을 다양 활용해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요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을 지도한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는 “짧은 준비 기간과 조리 전공이 아니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주제에 걸맞은 기업 제품들을 활용해 일품요리를 준비했다”며, “새로운 식품 개발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참가 학생들을 평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청음면 행복보장협의체 천원의 행복 바자회 개최

청음면 행복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병삼)는 최근 청음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천원의 행복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바자회는 제3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행사장 안에서 중고의류 판매와 어묵과 와플파이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판매하였으며 모든 물품을 천원에 판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천원의 행복을 안겨주었다.

이날 판매된 물품은 협의체 위원들이 심시일만 지인들에게 기부 받은 물품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그 의미가 더 새로웠다. 또한 수익금 전액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삼 민간위원장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웃사랑의 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5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중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3088-66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0965	정읍지사 538-3787
	진안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0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